

연중 제 20주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리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눅카 12, 51)



성광

학년

이름

성명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왔다고 하셨나요? (정답 2개)

- ① 불을 지르러
- ② 분열을 일으키러
- ③ 평화를 주러
- ④ 불을 끄러

2. 예수님은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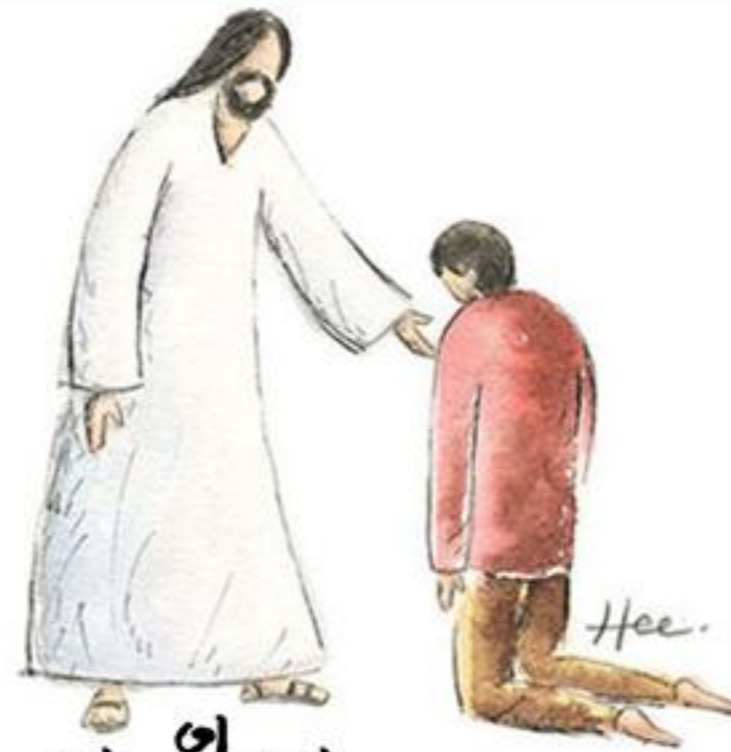
- ① 행복하다. ② 짓눌린다.
- ③ 편안하다 ④ 기쁘다.

3. 한 집안의 다섯식구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셨나요?

- ① 서로 갈라진다.
- ② 화목해진다.
- ③ 똘똘 뭉친다.
- ④ 행복해진다.

4.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말을 채워보세요.

"내가 세상에 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친구들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나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가장 먼저 사랑한다고 말 할 수 있나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좀 무서워요.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키신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분열'은

하느님과 하나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나와 하느님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 더 멀어지게 될때마다


하느님께 사랑한다고 더 기도하도록 해요! 🙏

1독서  여행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8,4-6.8-10

그 무렵 ⁴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⁵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⁶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⁸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⁹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¹⁰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2독서  여행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4

형제 여러분, ¹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²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건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³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건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⁴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행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⁴⁹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⁵⁰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⁵¹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⁵²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⁵³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마리아수녀의 주일 복음 그림 - 바오로딸쿤텐츠

